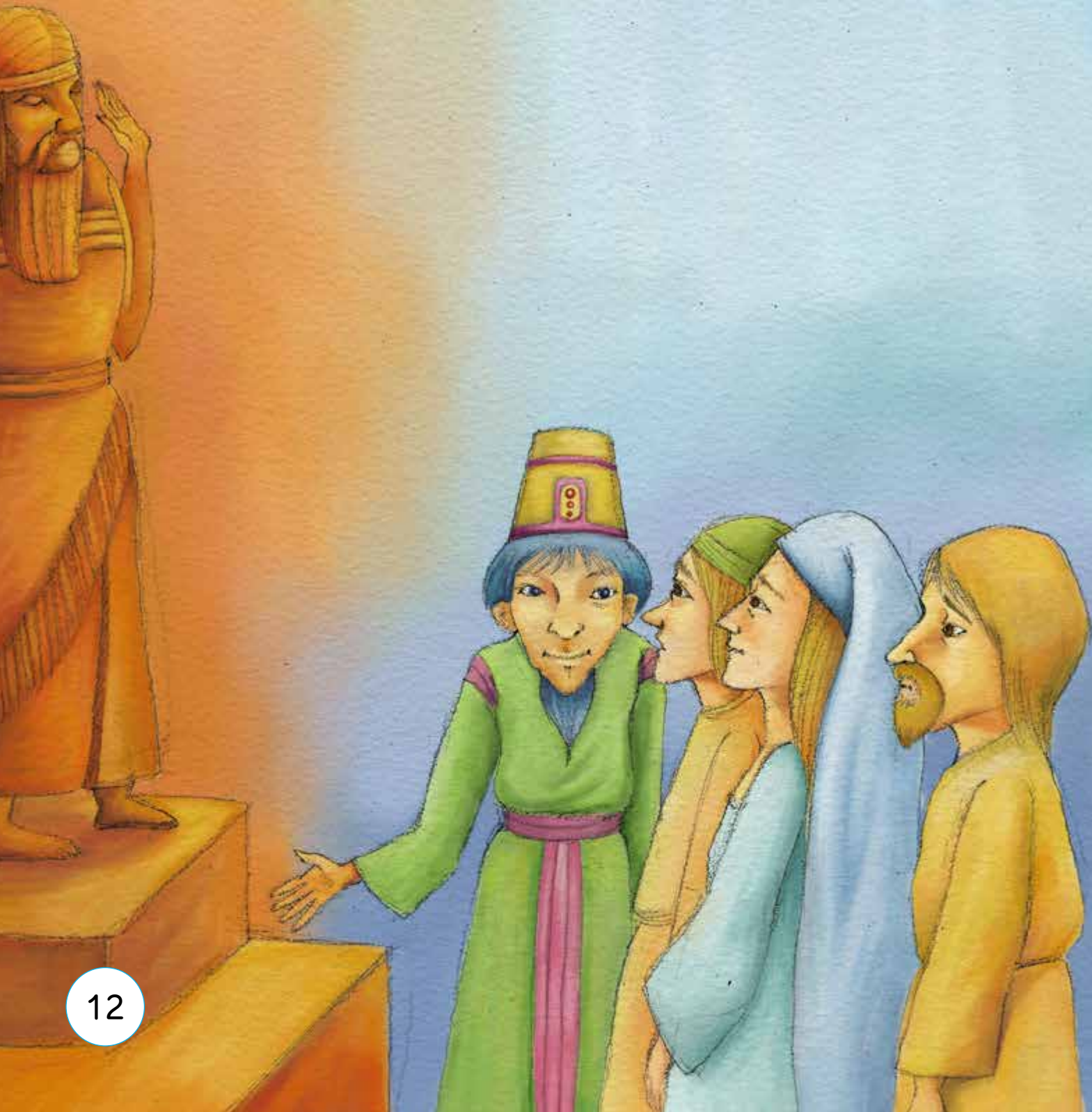


15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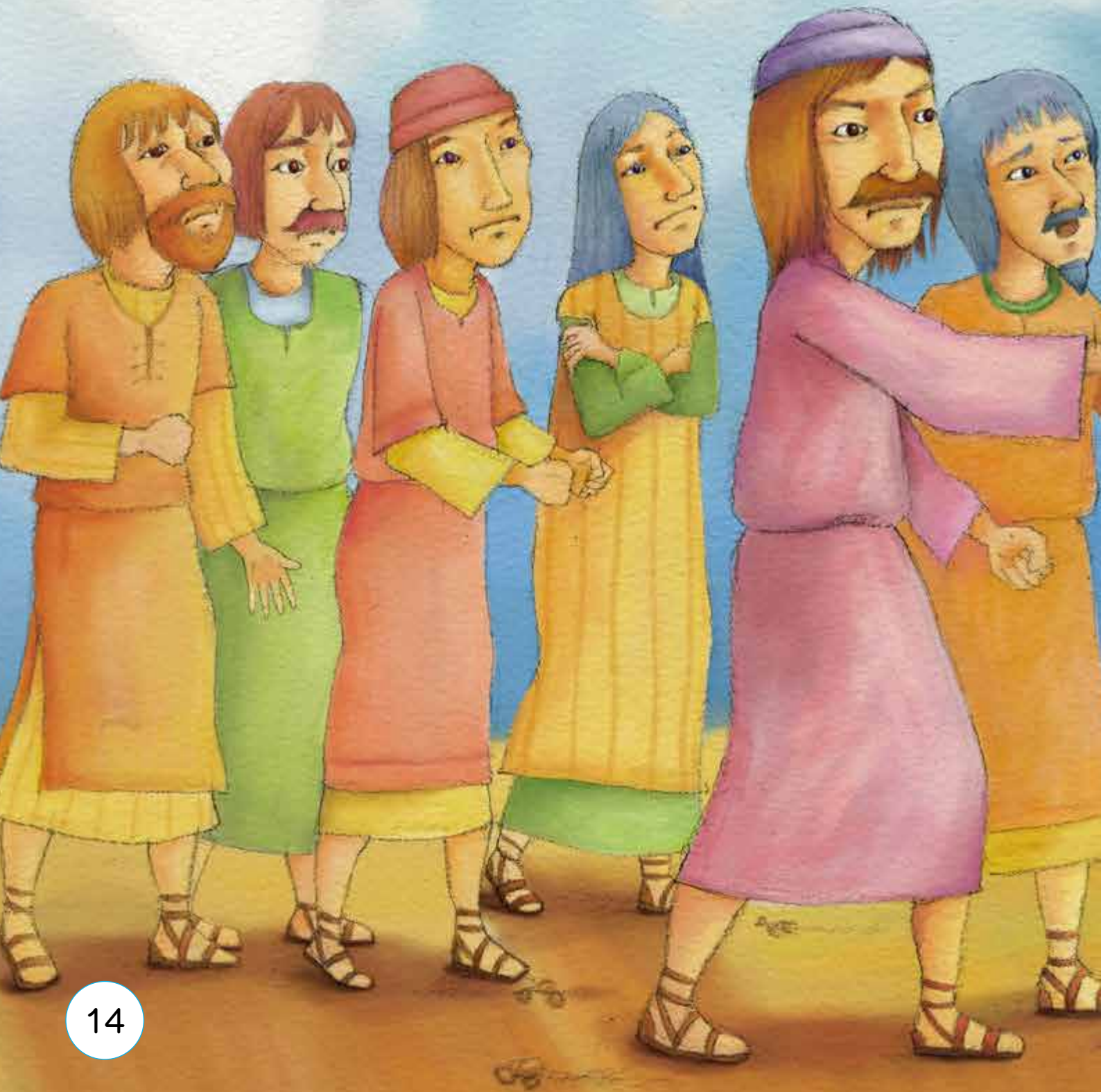
유다 백성은 많은 우상을 섬기며 더욱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에게 자식을 바치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유다 백성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가서 내 말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거라.”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백성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망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듣기 싫다!”
백성은 예레미야를 잡아 토굴에 가뒀습니다.
또 진흙 구덩이에 던져 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려움에 처한 예레미야를 항상 보호해 주셨습니다.



교제해요

1. 예레미야는 왜 슬퍼하였나요? ()



① 조그만 나라에
태어난 것이 싫어서



②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③ 몸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2. 밑에 문장의 빈칸을 보기에서 골라 완성해 보세요.

보기) ① 죄 ② 욕심 ③ 화 ④ 섬겼다 ⑤ 칭찬했다 ⑥ 괴롭혔다

말씀을 들은 백성은 를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3. 영수는 길을 걷다가 이웃집 베란다에서 불길기 솟는 것을 발견했어요.



“불이야! 불이야!” 영수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런데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영수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영수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요.

암송

암송을 따라 써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 1장 7절)

기도하는 어린이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전도하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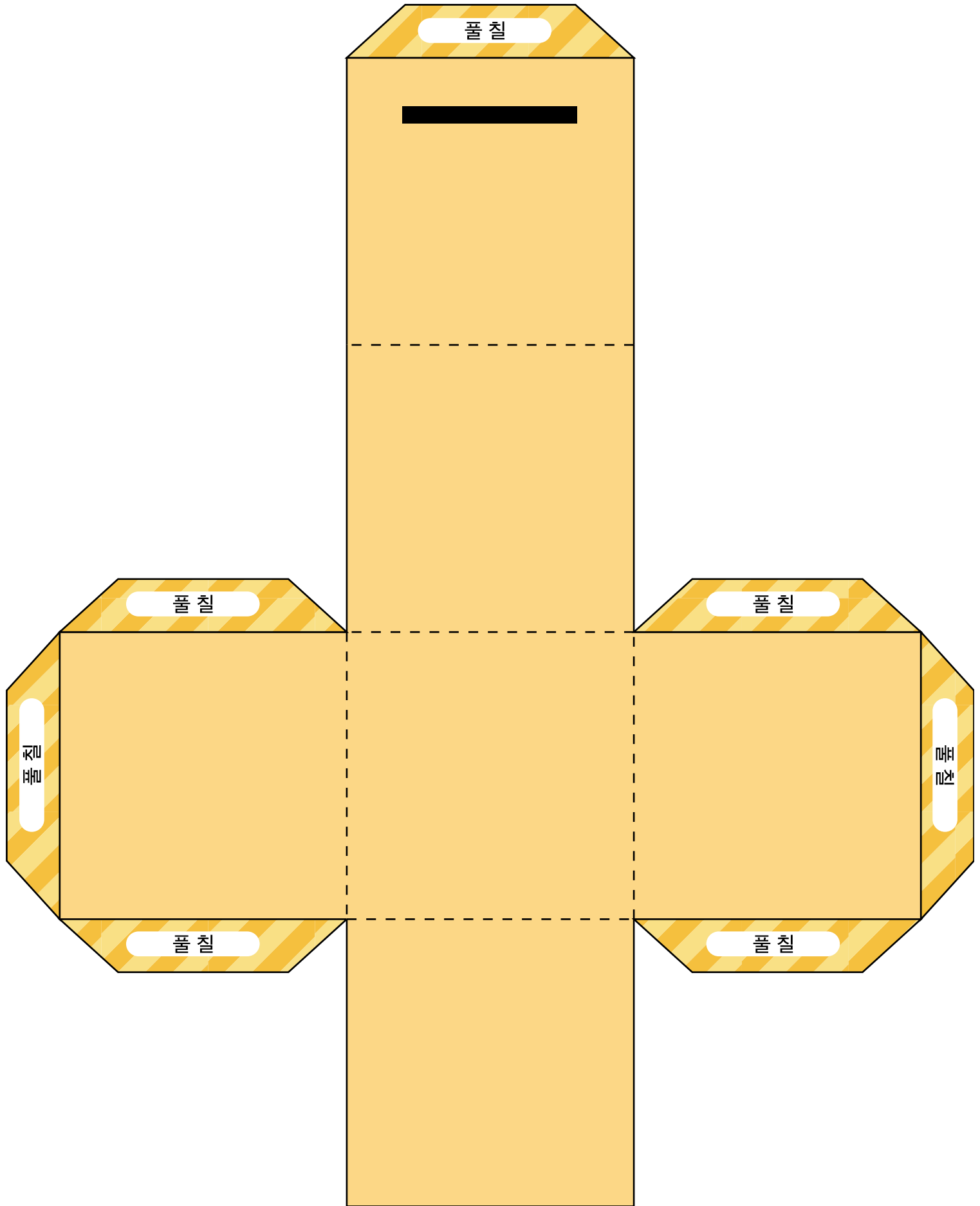
나의
기도



줄 만들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예레미야는 진흙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튼튼한 줄을 만들어 주세요.
(털실, 노끈, 리본 끈 등을 붙여 꾸며 보세요.)





폼 칠



폼 칠

폼 칠

폼 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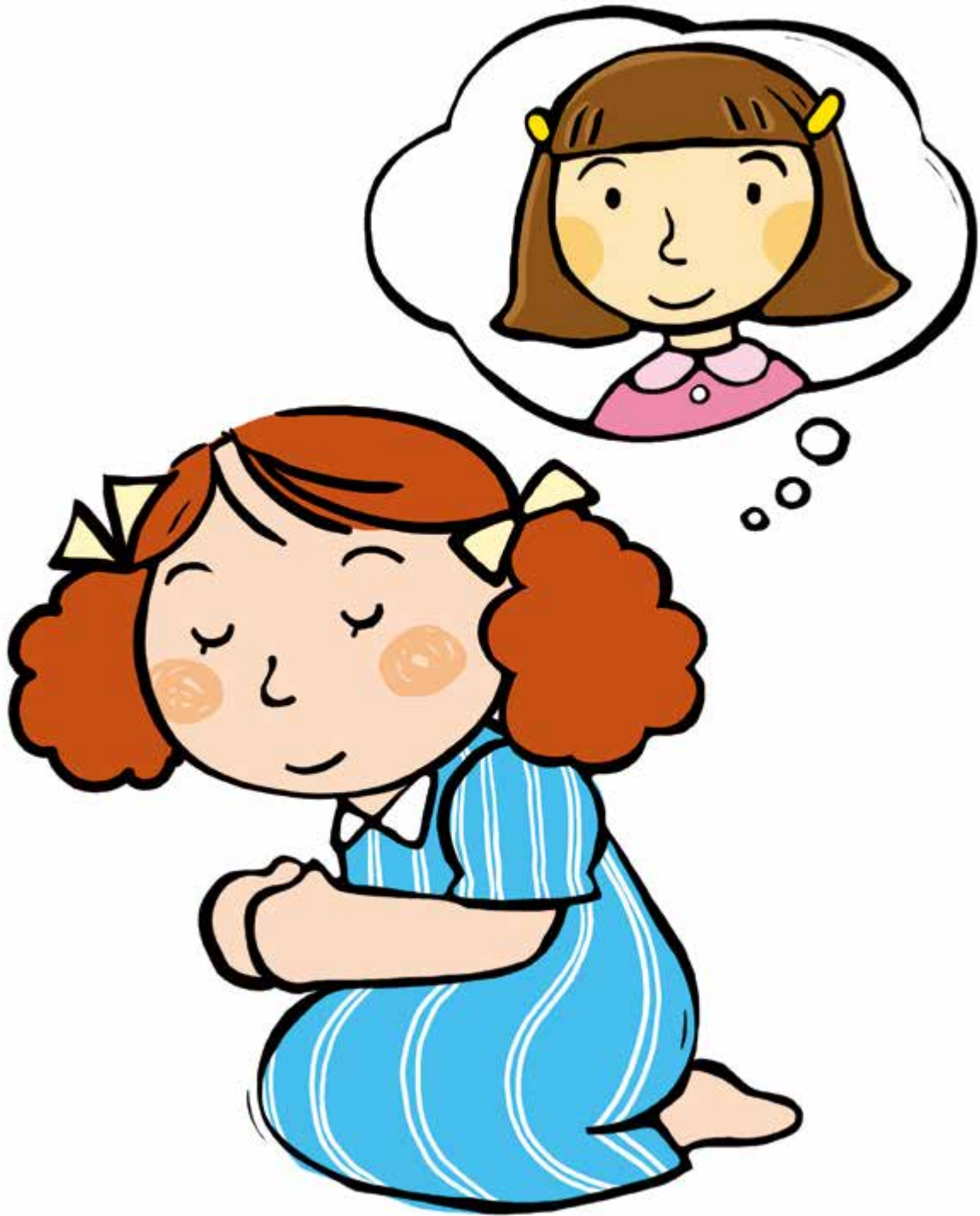
폼 칠

폼 칠

폼 칠

기도함 만들기

하나님께서 여름 성경학교로 우리를 부르세요.
기도함을 만들어서 함께 가고 싶은 사람 이름을 적어 넣으세요.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요.



선생님께

부모님께